



‘캠핑카·전기차에 미래차까지’ 부산에 다 온다

부산국제모터쇼 D-1

국내외 11개 완성차브랜드 참가
신차 25종·친환경차 40대 공개
관람객 위한 체험·볼거리 마련

국내 최대 자동차 축제인 ‘부산국제모터쇼’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부산모터쇼는 8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11개 완성차 브랜드에서 25종에 달하는 신차를 공개한다. 2016년 20여대에 불과했던 친환경 차량은 올해 그 두 배인 40여대 가량 출품된다.

◆다양한 라인업 공개

올해 부산모터쇼는 국내 완성차 업체 중 현대·기아차, 한국지엠(GM), 르노삼성자동차가 전시 부스를 마련한다. 우선 현대차는 ‘현대차와 함께하는 미래 모빌리티 라이프’라는 콘셉트로 2700㎡ 규모의 전시장을 꾸린다. 이곳에서 수소전기차 넥쏘와 코나EV, 아이오닉 등 전기차 등 친환경 모델은 물론 고성능 라인업 벨로스터 N과 i20 WRC 등 다양한 차량을 전시한다. 투싼과 i4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부산모터쇼에서 공개된다. 또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

시스는 아시아 프리미어 어센시아 콘셉트카와 의전용 차량인 G90 스포셜 에디션을 선보인다.

기아차는 순수전기차 모델인 니로 EV를 최초 공개하고, K 시리즈도 총출동시킬 계획이다.

최근 내수시장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GM과 르노삼성은 이번 모터쇼에서 대대적인 마케팅에 돌입한다.

한국GM은 하반기 기대작인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이쿼녹스’를 이번 모터쇼를 통해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최근 내수시장에서 월 판매 1만대를 이어가고 있는 현대차 신형 싼타페와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최근 판매를 시작한 전략 소형차 르노 클리오를 부산 영남지역 고객에게 소개하며 신차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르노삼성은 부산지역 대표 자동차 회사로서 지역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는 2년 만에 국내 시장에 복귀한 아우디가 공격적이다. 아우디는 대형세단 A8과 Q2, Q5 등 SUV, 스포츠카 모델인 TT RS 등 총 4종의 신차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소형 SUV인 Q2는 한국에 한 번도 출시된 적이 없는 모델로, 국내에 상륙한다면

가뜩이나 치열한 소형 SUV 시장의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BMW는 국내 최초로 6가지 모델을 공개하고 바이크 포함 총 20가지 모델을 전시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오픈탑 i8 로드스터와 향후 BMW 그룹 디자인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콘셉트 Z4, X 패밀리 중 완전히 새롭게 선보이는 뉴 X2, 세련된 디자인의 뉴 X4, 초고성능 스포츠카 M4 CS 등이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이 회사 전기차 브랜드인 ‘EQ’를 기반으로 기술 혁신을 추구해 온 새로운 모빌리티 비전을 소개한다. 벤츠는 이번 모터쇼에서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 차량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볼거리 즐길거리 풍성

부산국제모터쇼에는 완성차 전시 외에도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국내 최고가 벤츠 스프린터 캠핑카 및 최신 캠핑카와 카라반이 총 출동하는 ‘캠핑카 쇼’가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 벡스코 제2 전시장(신관) 3층에서 열린다. 최근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캠핑카인 에이스캠퍼와 제일모빌, 다운티엔티, 에어밴, 스타모빌을 필두

로 은하모빌, 화이트하우스코리아, 자동차시대캠핑카, 듀오탑, 위크캠프가 참가한다.

또 최근 1~2인용 이동 수단이자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2018 퍼스널 모빌리티 쇼’가 14~17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부산 벡스코 제2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2018 부산 국제 모터쇼’ 기간 중 동시 개최되며 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케이트보드 및 액세서리, 부품 등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분야 제품을 선보인다. 전시회는 퍼스널 모빌리티 전문 브랜드 샵이 브이샵을 비롯해 전기자전거 업체인 리콘하이테크, 웰리스포츠 등 30여개 국내외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업체가 함께한다.

같은 기간 자동차생활관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한 각종 용품이나 서비스, 미래기술 등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는 3D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전기자동차를 직접 시승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벡스코 RC카 레이싱 챔피언십’도 같은 기간 개최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T ‘데이터온’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일주일만에 16만명 돌파

KT가 3년 만에 전면 개편한 새 요금제 ‘데이터온(ON)’이 출시 일주일 만에 16만명을 돌파하며 통신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KT는 지난달 30일 출시한 ‘데이터온’ 요금제 가입자가 출시 3일 만에 10만명을 달성한 데 이어 1주일 만인 6월 5일 기준으로 16만명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출시한 ‘데이터 선택 요금제’ 가입자 10만 달성에 4일 걸렸던 것에 비해 하루 빠른 속도다. “하루 2만명 이상이 데이터온에 가입하고 있는 추세”라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특히 신규판매 가입자 중 데이터온 요금제 선택 비중은 50%를 넘는다. 가장 호응이 높은 세대는 2030세대로 데이터온 요금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데이터온 총 가입자 중 요금 변경으로 가입한 비중은 80%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데이터 선택 요금제’로 변경한 가입자와 비교할 때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요금제 가입 비중을 살펴보면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과격적으로 확대한 ‘데이터온 비디오’ (월 6만9000원, 100GB+5Mbps 속도제어) 요금은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특히 20~30대 비중이 75% 이상으로 기존 요금제에 비해 제공 데이터를 매월 100GB로 대폭 늘리고 멤버십 VIP 혜택까지 제공한 것을 인기비결로 꼽았다.

/김나인 기자 silkni@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 스마트홈 서비스 ‘U+우리집AI’ 기능 업데이트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U+우리집AI’

음성명령을 내 맘대로 더 똑똑하게 업데이트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AI) 스마트홈 서비스인 ‘U+우리집AI’ 사물인터넷(IoT)을 원하는 이름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쉽게 부르는 IoT ▲내 명령어로 동시에 켜고 끄는 IoT ▲음성제어 가능한 IoT기기 확대 등 인공지능 스마트홈 서비스 ‘U+우리집AI’의 세 가지 IoT 기능 업데이트를 5일부터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IoT 기기 이름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음성명령 시 “클로바스 위치 켜줘”라는 일반 명령뿐 아니라 IoT 기기에 이름을 붙여 “클로바 ‘작은 불’ 켜줘”와 같은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장소도 지정하면 “클로바 ‘아이 방’ 불 켜줘”와 같은 음성명령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내가 만든 명령어로 집안 내 여러 IoT기기들을 동시에 켜고 끄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클로바 나 잘게”라고 말하면 고객이 설정한 TV(플러그)와 조명(스위치)이 꺼지며 가습기가 작동한다. 여행 시 “클로바, 여행모드”라고 하면 가스밸브, 조명, 가습기, 에어컨 등이 자동으로 잠기고 꺼진다.

이처럼 고객이 정한 이름과 명령어로 IoT기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U+홈IoT 앱인 ‘IoT@home(아이오티애허)’의 ‘우리집기기’와 ‘동시실행’ 메뉴에서 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U+우리집AI 스피커와 연동되는 기존 10종의 IoT기기를 멀티탭, 열림감지센서, 선풍기 등을 추가해 총 20종의 IoT기기로 늘렸다. /김나인 기자

제주항공, 수속절차 간소화 국적사 최초 ‘자동탑승수속’

제주항공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탑승수속 절차를 개선하며 ‘무인수속서비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탑승수속 카운터 혼잡도를 낮추고 수속절차를 간소화 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6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국적항공사가 가운데 처음으로 항공권을 예매하면 항공기 탑승 24시간 전에 모바일로 탑승권을 자동발급해주는 ‘자동탑승수속’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동탑승수속’은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승객에게만 적용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모바일서비스 개선사업의 하나로 약 7개월 간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자동탑승수속’을 하면 최초 좌석은 자동배정되지만, 모바일 탑승권을 받은 후 좌석변경 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좌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탑승 24시간 전에 모바일로 전송되는 탑승권 발급 안내에 따라 원할 경우 자신이 직접 발급받아야 했다.

제주항공은 ‘자동탑승수속’ 서비스로 모바일 수속 편의를 높인데 이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탑승수속’이 가능한 노선도 확대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미세먼지 뒤덮인 車, ‘세차’해야 ‘새 차’로

‘볼스원 프라자’ 세차법 알아보니

차량 열 식힌 후 세차 시작해야
카샴푸로 거품내 1분간 때 불리고
상부서 하부로 닦아야 흠집 방지
잡티 제거 ‘액체형 클렌저’ 추천

봄철 세차는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황사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차량 외부 오염을 방지할 경우 차량 외관에 흠집이 나거나, 유해성 오염 물질로 인해 심할 경우 차체가 부식이 될 우려도 있다. 또 차량 외관에 쌓인 먼지는 차량 실내나 엔진으로도 유입될 수 있어 운전자는 물론, 차량 성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신차를 구매하면 최소 5년 이상 이용한다는 점에서 주기적인 세차를 통해 차량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자동차 용품 전문기업 볼스원이 운영하고 있는 ‘볼스원 프라자’를 찾아 세차 용품 사용법과 세차 방법을 알아봤다.

◆기계식 자동세차시 ‘잔기스’ 주의

기계식 자동세차는 간편하고 빨리 끝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웰(잔기스) 마



차량에 카 샴푸를 뿌린 뒤 1분가량 때를 불린 뒤 위에서 아래로 차량의 먼지를 닦아내고 있다.

크’가 쉽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오히려 차 광택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잔기스를 없애기 위해 추가 비용을 들여 광택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볼스원 프라자 최학민 주임은 “기계 세차의 경우 기계의 과중한 힘과 불규칙한 타월 방향으로 자동차 도장면에 거미줄 모양의 흠집을 내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세차시 상부에서 하부로

세차를 시작하기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 주행중 발생한 열을 식혀야 한다. 세차장으로 이동 중 엔진과 휠, 디스크 브레이크에 열이 발생한다. 만약 갑자기 찬물이 닿을 경우 휨이나 변색이 될 수 있다. 열이 식으면 휠 세정제를

골고루 뿌리고 1~2분가량 찌든 때를 불려준다. 앞범퍼 등에 찌든때나 벌레 등이 붙어있는 곳이 있다면 클리너를 뿌려 주는 게 좋다.

이어 고압수를 이용해 차량을 세척한다. 이때 잘못된 방법으로 세차를 진행할 경우 차체에 흠집을 내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차시 차량의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 대부분 손세차장에서는 거품 솔과 전용 폼, 카샴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의 잔기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카샴푸를 추천한다. 카샴푸를 뿌린 뒤 거품은 1분 동안 그대로 두어야 때를 벗기는 데 효과적이다.

◆잡티 제거 새차처럼

세차 후에도 차량 표면에 찌든때가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용도클리너를 사용해 지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볼스원 ‘크리스탈 클렌저’를 추천한다. 액체형으로 깨끗한 천이나 스폰지에 소량을 묻혀 가볍게 문질러 주면 도장면의 얼룩과 오래된 왁스 코팅 막을 제거할 수 있다. 물론 고체형 왁스를 사용하면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고른 빛을 내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양성운 기자